

1

4 위피(WIFI) 표준화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 ■ '위피(WIFI)'

21세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하여 많은 기업들이 IT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IT강국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외형적 성장을 보여주었다. IT업계의 선전은 IMF 경제위기로 위축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사례로 인식되었다. 언론에서도 우리나라 IT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명품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며 연일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IT 업계의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가 없었다. 핵심원천기술이 빠진 제품의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계 최초의 CDMA상용화에 성공하며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국내 IT업계의 성공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곳은 바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사였다. 조그만 중소기업에 불과했던 퀄컴사는 국내 IT업체의 성장을 배경으로 천문학적 인 로열티를 벌어들였고,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뼈아프게 경험한 우리나라 정보통신 업계는 제2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직접 원천기술을 개발하자는데 의견

을 모으게 되었다. 그 첫 시도가 바로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 규격인 위피(WIF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였다.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각기 서로 다른 무선응용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서로 다른 환경의 콘텐츠들이 무작위로 개발되고 있었다. 환경 자체가 다르다 보니 상호호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기술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바로 '위피'였다. 2001년 당시 위피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표준 규정을 통일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 2001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위피는 2002년 5월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으로 TTA 표준으로 채택된 이후, 2003년 4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표준 플랫폼을 하나로 통일한 '위피1.1'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로써 어떤 통신 사업자의 인터넷 콘텐츠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뛰어난 성능과 편의성을 갖춘 위피개발에 성공한 정부와 TTA는 위피의 국제표

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 좌절, 그러나 절반의 성공 ■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정부는 우선 위피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세대 규격 개발, 콘텐츠 호환성 제고, 콘텐츠 제작·보급 활성화, 해외 진출 등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중심의 추진주체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피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위피 플랫폼의 시장 확대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솔루션/콘텐츠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OMA(Open Mobile Alliance), OMTP(Open Mobile Terminal Platform) 등 플랫폼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를 통한 WIFI 규격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해 나가는 등 위피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표준화를 시도한 기술은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의 구동 능력이 뛰어난 '위피 V2.x'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와 TTA는 최적의 성능과 효율성을 갖춘 위

피의 국제표준화 작업은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원천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등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위피는 끝내 국제표준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사양길로 접어들게 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 표준화 시장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제지에 의한 것이다.

미국의 제지로 비록 국제표준화에는 실패하였지만,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의 조기 확산에 따른 고기능 단말기·솔루션·콘텐츠 시장의 형성 등, 지금까지도 위피는 국내 모바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위피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IT 표준화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와이브로 탄생의 계기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위피의 사례를 통해 국제표준화라는 산을 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파악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DMB, 와이브로라는 자랑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출발에는 위피의 교훈이 있었던 것이다.

